

스마트 그린도시 성공 추진 '맞손'

장수군-환경부 협약 체결·탄소중립 비전 선포... 적극적 정보 공유·홍보 등 협력

장수군이 탄소중립 이행 비전을 선포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와 장수군은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적극적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진행해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I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상수도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영농, 생활폐기물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실현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을 확정했다.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사업 완료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원(국 60, 도 10, 군 30)을 투자하며 오는 6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장영수 군수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청정장수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분양

진안군, 30필지 분양공고... 신청 받아 우선순위 따라 추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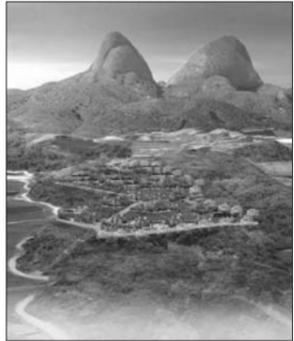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농촌지역으로의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군의 청정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진안읍 단양리 286~7번지(구 기술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주택용지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은 읍 소재지와 인접하고 있고 진안(군)에서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등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마이산 도립공원과도 1.5km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도 좋아 도시민들의 관심이 큰 곳이다.

군은 3월 31일 분양 예정 주택용지 30필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5월 4일 분양신청을 받아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신청 자격 및 순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1순위) ▲사업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2순위)는 수의분양 대상이며, ▲분양공고일 현재 전라북도를 제외한 농촌거주 희망도시민 세대주와 사업이 시행된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또는 군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자(3순위)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4순위) ▲전라북도 도시민(5순위)으로 분양신청 자격 및 순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분양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분양 가격은 ㎡당 17만원~18만원 가량이며



진안 마이산 신규지구 조감도.

필지별 분양면적은 296㎡~411㎡ 예정이다.

분양대상자로 선정 시 분양대금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 50%와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은 조성 면적 2만 5,512㎡ 규모로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85%정도 진행된 상태이며 도로와 마을회관부지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춘성 군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진안 마이산지구 신규마을 분양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인구가 유입되면 진안군 인구늘리기의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용담호에 뱀장어 치어 2만2000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용담호에 뱀장어 치어 2만2,000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대표적인 토착어류로 내수면 특성에 적합하며 치어 크기는 전장 10cm 이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군은 매년 다양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뱀장어는 내수면 어종 중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고 방류 2~3년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뱀장어 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용담호와 공공용수면에 붕어, 동자개, 쏘가리, 자라,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외래어종 퇴치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여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민회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장수군 농민회는 지난달 31일 장수시장 야외무대에서 장영수 군수, 기관단체장 및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발대식을 열고 올 한해 영농의 무사안락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장수를 품물단의 신명나는 놀이를 시작으로 장수군 농민회 제17기 고승현 농민회장 이임식과 제18기 정상길 농민회장 취임식, 주요 참석자의 덕담,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 등이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올 한해도 농업인의 노력이 앞장 결실을 맺는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48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농산물유통 활성화 등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농기센터, 소형 특수 농기계 교육 실시

진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 스카드로터 교육 등 소형 건설기계 관련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3월 22일~4월 23일까지다.

교육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선발된 60여명이다.

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으로 기간 내 2~3일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에 전문 교육 기관이 없는 관계로 전주와 임실 지역 2개 전문 위탁 기관에서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매년 60명씩 해마다 소형 특수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거기에 해가 거

듭될수록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60명을 모집하는 이번 교육 과정에 130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군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외에도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현장이용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기계 사용을 돕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문의가 늘어감에 따라 올해 임대농기계 46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리한 농사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읍서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가져

군정 발전방향 논의·건의사항 등 전달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서는 지난달 31일 군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이 열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며 진안군민들의 애로사항과 진안군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열린군수실에는 진안읍민 20여 명이 참석하여 군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개개인의 건의사항을 전

달하고,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원문 진안읍장은 진안 군정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열린군수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군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 성희롱·갑질 등 고 비난성 비위 예방 위한 멘토링 결연식 가져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지난 3월 31일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갑질, 성희롱 등 고 비난성 비위 예방을 위한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결연식은 빈중석 무주경찰서장을 비롯 무주경찰서 소속 여경 12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 결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희롱 등 성 비위 예방을 위한 저마다

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종 자유롭고 회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임용 2년차 차승희 순경은 "그동안 크고 작은 고민을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 해결하곤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각기 다른 처지였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웬만하면 참아라"라는 말과 함께 단순한 위로 받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멘토가 지정됨으로 인해 보다

실질적인 고민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에 찬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빈중석 무주경찰서장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우월의식과 무던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갑질, 성희롱은 그 어떤 물리적인 피해보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 멘토를 중심으로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